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2호 HYUNBULNEWS.COM 2025년 3월 12일(음력 2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3월 6일 열린 조계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개관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내외빈들이 보존센터에 있는 불교문화유산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조계종 홍보팀

불교문화유산 보존 전진기지 문 열다

조계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개관식
2013년 계획 수립 후 2024년 준공 완료
사업비 195억원 투입…국가유산청 협조
국내 최고 수장고 · 보존처리실 들어서
진우 스님 "소중한 정신 미래 잇는 출발"

양평=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전경.

불교문화유산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의 대다수 문화유산이 불교문화유산인만큼, 이에 맞는 전문 연구시설로서 분야별 과학적 보존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6일 양평 용문산 아래 위치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이하 보존센터)에서 개관식을 봉행했다.

조계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보존센터는 2013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을 시작했다. 2022년 착공해 2023년 상량식을 거쳐 2024년 12월 준공을 완료했다. 총 사업비 195억원이 투입된 보존센터 건립은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비롯해 경기도청과 양평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더욱 나은 환경에서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평 부지는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용문사의 기부로 마련돼 의미를 더한다.

용문산 아래인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5-22에 위치한 보존센터는 건축면적 1889㎡(571평), 연면적 6769㎡(2048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됐다.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수장고를 비롯해 재질별 보존처리실, 전시실, 연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내 최초의 대형불화를 조사 및 보존처리할 수 있는 대형불화처리실을 갖췄다.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보존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불교문화유사의 가치를 밝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전센터 건립은 의미가 크다. 불교문화유산뿐 아니라 국외 소재 성보문화유산 환수 협조 및 보존 복원 참여를 통한 공익성 증대 측면에서도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추후 보존처리를 완료한 불교문화유산 전시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개관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쁜 마음으로 보존센터의 의미를 전하고 맑은 물과 자연의 보고인 양평에서 출발하는 보존센터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진우 스님은 "유산을 지키고 후대에 온전히 전하는 일은 종단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각 사찰에는 오랜 세월 그 유산을 보호하고 이어왔고 보존센터는 그 성보들을 더욱 가치 있게 유지하고 미래로 전하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호암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보존센터가 수행과 지혜를 나누는 터전이 되길 서원했다. 호암 스님은 "먼 시간을 넘어 전해진 불교들의 법과 신심이 이 공간에서 소중하게 연구되고 보호돼 불교문화의 맥을 잇고 후대에 전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길" 바랬다.

이날 진우 스님은 불국사 문화국장 효신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효신 스님은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종단 목적 불사인 보존센터의 건립에 크게 이바지 한 점을 인정받았다.

개관식 후 진우 스님은 보존센터를 라운딩하며 문화유산 보존 및 보수 시설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보관 유물들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보존센터는 2021~2024년 진행한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 조사〉 사업을 통해 파악된 손상이 심한 고승 진영에 대한 보존처리를 시작한다. 또 불상 복장 유물에 대한 인문학, 원형 디지털, 과학 조사 등을 통해 원형 기록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 및 보존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 문화유산 보존 처리 교육과 시민 강좌도 준비 중에 있다.

조계총림 송광사, 제8대 방장 후보 현묵 스님 선출

3월 6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90안거 성만, 수행 매진한 禪僧
"목우가풍 계승…선풍 빛낼 것"



조계총림 송광사가 새 방장 후보로 현묵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3월 6일 경내 자재원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방장 후보 선출을 논의한 끝에, 현묵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315명(비구 262명, 비구니 53명) 중 217명이 참석해 성원이 충족됐다. 앞서 송광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임회를 통해 현묵 스님을 방장 후보로 추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송광사 제8대 방장 후보로 추대된 현묵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 송광사 조계총림 산중총회를 통해 원로 대덕스님들과 여러 대종사 스님들, 그리고 대중스님들의 뜻이 모아진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송광사의 목우가풍을 이어가며 대중스님들을 잘 모시고, 옛 선사 스님들의 가풍을 계승해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대중스님들께서 수행과 정진의 가풍을 이어간다면, 조계총림 송광사는 더욱 불법이 융성하고 선풍이 널리 선양될 것"이라며, "앞서 소임을 맡았던 현봉 방장 스님께서 많은 깨우침과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다 가셨다. 그 모습을 본받아 송광사의 선풍을 더욱 빛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8일 송광사 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개최를 앞두고 구성원 명부를 확정했다. 이후 현묵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방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며, 송광사는 오는 4월 24일 보조국사 종재에서 승좌법회를 열어 전통을 잇는다.

현묵 스님은 1971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72년 사미계를, 197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5년 송광사 선원에서 수행을 시작한 뒤 전국 제방선원에서 총 90안거를 성만하며 수행에 매진했다.

특히 1983년부터 하동 칠불사 선원에서 10년간 수행하며 산문을 나서지 않고 정진했다. 이 기간동안 7년 묵언 정진을 실천했으며, 대중과 함께 3년 결사 정진을 마쳤다.

또한,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송광사 유나(선원을 총괄하는 직책)를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는 송광사 수좌와 수련원장을 맡아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순천 송광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교지도자들 "헌재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종지협, 3월 5일 입장문 발표

한국의 7대 종교지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이하 종지협)는 3월 5일 '대한민국, 하나 되어 나아갑시다' 제하의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화합과 상생을 당부했다.

종지협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현직 대통령의 구속과 내란죄 기소, 헌법재판소의 심리까지 이어지며 우리의 국가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 놓였"음을 상기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종지협은 "헌법이 존재하는 한, 그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민주주의란 절차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절차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 모두의 길은 막힐 수 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 국민, 정부, 정치권 모두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7대 종교지도자들은 다툼을 멈추고,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종지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의 진영논리에 갇힌 극단적 주장을 멈추고, 국가적 위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여야가 서로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손을 맞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서로를 불신하는 데 있지 않다. 국민 모두가 함께 걸을 길을 모색하며,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에 몰두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종교계는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국민이 다시 하나 되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중일 기자

2025학년도 금정총림 범어사 승가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화엄 종주 의상조사의 창건 이념을 계승한 「화엄경」사상과 경허선사께서 오래 주석 하시면서 비롯된 선풍을 계승한 범어사 승가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_ 사미, 비구
■ 모집기간_ ~ 2025년 3월 31일까지 (※사전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_ 1) 입방지원서 및 신상명세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서약서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3) 건강진단서 (종합병원 *2025년 사미계 수지자는 생략 가능)
4) 사미증 사본
5) 사진(만의복장, 3×4규격) -3장
■ 준 비 물_ 만의(사미), 장삼
■ 전 형_ 서류심사, 면접(추후 개별 연락)



■ 특 전_
● 강의교재 구입비 및 신입생 최신형 아이패드 지원
● 졸업여행 인도 부처님 성지순례 지원(약 10일) 또는 해외연수비용 지원
● 신입생 입학금 면제, 신입생 및 편입생 매월 최고 수준의 수행비 지원
● 화엄경 특강(화엄경 연구원 대강백 무비큰스님) 및 선지식분들의 특별법문 참여가능
● 학습시간 및 여가시간 보장
● 전학년 경전 강의 및 영어 수업, 염불 수업 진행
● 동국대 병원 MOU체결, 병원비 약품비 지원
● 강원 스타렉스 차량 지원
● 안거 반철 부산지역 사찰순례 지원
● 생활에 필요한 기본 용품 지원
● 부산 도심의 접근성 용이(관공서 및 병원 등)
-셔틀버스 운행 -시내버스 이용 -강원 차량 이용

■ 원서교부 및 접수_ 범어사승가대학 051)508-3127, 종무소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승가대학
방장 여산정여 대종사 · 주지 정오 · 학장 도산